

연중 제24주일

기도서 P. 434 A해

제1독서(질 회 27, 30-28, 7)
제2독서(로 마 14, 7-9)
복 음(마 태 18, 21-35)

숲 정 이

발행처 전주교 전주교구
편집처 사 목 국
인쇄처 관 리 국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6
전주 교구청
☎ ③ 5098 ③ 3201

□ 강론

용서의 숫자풀이

서 석 구 신부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자비롭다는 것을 은근히 뽐내기 위하여 죄인을 7번까지 용서해 주면 어떻게 냐고 묻는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겠지... 하고, 7을 힘주어 말했다. 그러나 용담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일곱번씩 일흔번까지 용서하라고 하자 베드로는 혹을 더 얻은 셈이다. 당시 7의 숫자는 완전함을 상징한 숫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의 관례로는 죄인을 3번까지는 용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들의 관례로 3번까지는 보아주는 미덕이 있다. 내 자신도 남을 꾸짖을때 3번까지는 참아주는 인내도 있다. 그러나 예수님의 용서의 대답은(7×70=490)-그 당시 7은 완전수, 70은 무한함을 상징- 빈수나 숫자에 대달리지 않고 완전하고 무한하게 해 주라는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다. 재미있는 것은 7×70=490이고 490을 0을 빼고 4×9=3이다. 36에다 0을 붙이면 360이 된다. 이렇게 억지로 만들어 보면 1년은 360일이 아닌가. 용서하는 것을 1년 내내 하라는 것이다.

하루가 일평생의 축소된 날이라 생각하고, 하루 아침이 일생의 첫 출발이라고 생각할때 하루의 용서는 1년의 용서요, 1년의 용서는 일평생의 용서가 아니겠는가? "해질 때까지 화를 풀지 않으면 안 됩니다."(예레 4, 26)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그를 찾아가 화해하고 나서 돌아와 예물을 드려라"(마태 5, 24) 용서와 사랑에는 크기나 빈수가 필요치 않다. 한평생 우리에게는 용서하고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말이 쉬운것 같지만 내 생활중에서 가장 풀 수 없는 단어중에 하나입니다. 사랑이란 단어보다 더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 인것 같습니다.

남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죄인을 용서해 주지 못하는 마음은 정말 괴로운 마음의 상처요, 주님의 훈연한 꾸중을 들어야 마땅할 것이다.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마태 6, 15)

"우리에게 잘못된 이를 우리가 용서하듯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매일 주의 기도를 바치면서도, 저 무자비한 종의 비유에서처럼 하느님과 남으로부터는 한없는 죄의 탄생을 받기 원하고 자기는 조금도 남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 어리석고 우둔한 자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 같습니다. 용서와 사랑은 완전하고 무한해야 함을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해 묵상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죄인을 용서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가르쳐 주소서.

<함열 전주교회 주임신부>



소잡을라!?

- 뇌물과 선물 -

「아라비안 나이트」라는 민화(民話) 모음책을 보면 신밧드의 모험 이야기가 소개된다. 아무데나 나뉠 수 있는 돛자리가 어린 마음을 상상의 나라로 이끄는 재미있는 이야기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교육연합회가 제공한 돛자리를 국회의 몇몇 문공위원들이 뺏다고 해서 문제가 되어 있다. 국민들간에는 그것이 뇌물이나 선물이나로 의견이 분분하고, 관련된 정당에서는 책임자들을 바꾸는 소동까지 일고 있다.

선물과 뇌물의 공통점은 남에게 무엇인가를 주는 것이다. 다만 그 주는 행위가 '존경이나 친근 또는 애정의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선가, 아니면 '사리(私利)를 얻기 위하여 일정한 직무에 있는 사람을 매수할 목적' 인가에 따라 성격이 달라진다. 분명한 사실은, 뇌물을 주고 받는 행위는 근절되어야하나 선물을 주는 일은 아름다운 일이니 장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함께 나누어 먹는 일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웃과 서로 나누어 먹고 돕는 미풍을 남겨 주었다. 성서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도 가진바를 서로 나누며 하느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사도행전 2장43절 이하, 4장 32절 이하)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은 '안주고 안받기'를 요청당하며 살고 있다. 물론, 넉넉시 거러되는 뇌물때문에 그렇게까지 되고 말았다는 것을 모르는 바도 아니다. 다만, 빈대를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훑랑 불태우는 일인 것 같아 염려스러운 것이다. 주는 행위는 감사의 마음에서 비롯된다. 또한 감사의 표는 마음과 행동이 함께 하는 것이 보통이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은 배우고 또 가르쳐야 한다. 서로 나누는 미풍양속도 장려해야 한다. 뇌물이 무서워서 자칫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잘못을 범하지 않을까 두렵다.

숲 정 이 산책



소련 비밀경찰 관원

전주교구 순교성지

김진소 신부

* 천주교와 전주지방

전주지방은 남방(南方)교회의 요람지요, 성지(聖地)중 성지이다.

1784년 한국 교회의 창설자의 한 사람인 호남의 사도 유헌경(아우구스띠노)이 이 고장에 복음을 전한 후, 1937년 교황 비오 11세가 전주교구를 한국 최초의 방인자치교구(邦人自治敎區)로 설정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씨앗인 순교자들의 피가 이 지방에 뿌려진 후 계속 순교자의 꽃을 피워온 결과이다.

윤지충·권상연이 한국 최초의 순교사에 불을 켜 후 이 지방은 병인년 순교자인 다블뤼 안주교가 「전 조선 순교자 중 으뜸 솜은 하나의 진주」라고 찬탄한 동정부부 이누갈다(順伊, 유희)와 유평(重誥, 宗善)을 담은 옥합인가 하면, 한국의 「아네스」로 칭송받는 12세의 작은 천사 이아나다시아(봉금)등 출중한 신앙의 증거자들을 배출하였다.

1791년(辛亥)·1801년(辛酉)·1827년(丁亥)·1839년(乙亥)·1866년(丙寅) 박해가 있을 때마다 순교의 피로 점철되고, 전주·여산·고산·진산·김제 등지에서 신앙의 생수가 흘렀다. 1968년에는 24위의 병인 순교 복자중 7위의 성직자를 제외한 17명중 이 지방 출신 7위가 영광의 월계관을 썼다.

현재 전주교구에는 순교자의 후예로 집단 부락을 이룬 신앙촌이 곳곳에 잔재하고 있는데, 오늘날 전주교구 신자들이 깊은 신앙을 가지고 모범적인 교구의 일치를 이루고 있는 것은 순교의 얼을 정신의 영양소로 지닌 때문 이리라.

* 남문 밖(현 전동성당 일대)

호남제일성의 남문밖은 한국 최초의 순교자와 호남의 첫 사도가 처형된 곳으로, 종종 중죄인을 처형하여 그 머리를 성 누자에 높이 달아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주었다.

1791년(신해) 박해: 윤지충(바오로)·권상연(야고버)은 양반의 후예로 내외중간이었는데, 1786년 세례를 받았다. 1790년 10월 북경 주교 구베아가 유교식 조상제사를 미신행위로 금지하자 제사를 폐지하고 위패를 불살랐다. 그런데 1791년 여름 윤지충이 모친상을 당하자 의중형인 권상연과 상의하여 모친의 유언대로 유교식 가례(容禮)를 폐지하였다. 이것은 유교의 전통에속에 젖은 이조 후기 사회를 전폭 부정할 도전이었으나 교회와 모친의 뜻에는 순종과 효성이 되었다. 이 두사람은 진산에서 전주로 압송되어 12월 8일 윤지충은 33세, 권상연은 41세로 참수치명(斬首致命) 하였다.

윤지충은 치명당시 온전히 축일을 당한듯 기쁨에 차서 마치 천상 향연에 나가듯 형상으로 향했고, 온전한 정신으로 예수 마리아를 부르며 열중했다. 또 그의 시체는 9일동안 버려졌는데도 생생하였고, 그의 피는 금방 흘린듯 신선하였으며, 형틀에 묻은 피와 피를 적신 수건을 만지기만 하여도 죽어가는 사람이나 불치병자가 완쾌되었다고 한다.

1801년(신유) 박해: 유헌경은 전주(晉州) 유씨로 현 완주군 이서면 남계리 초남부락에서 호남제 1의 토호였다. 청운의 뜻을 품고 상경했던 그가 스승 권일신을

쫓아 1784년 세례를 받고 호남의 사도가 되어 귀향하니 하느님의 섭리는 인간의 뜻과 다르신가 보다.

1801년 정월 어린 왕 순조의 계증조모 김대비가 박해령을 내려 오가작통법(五家作統法)을 실시 천주교인 검거선봉이 일어났다. 전주감사 김달순은 3월 유헌경과 그의 서제(庶弟) 유관경, 그리고 전주지방의 평신도 지도급인 윤지현(유지충의 동생)·김유산·이우집 등을 체포하여, 유헌경 형제는 9월 17일 남문밖에서 육시형(戮屍列)을, 그외는 교수형을 시켰다.

* 숲정이(現 해성중·고교)

숲정이(슴머리)는 이조시대 언제부터인지 사형장으로 사용되었다.

1801년 12월 28일(양력 1802년 1월 31일) 이누갈다와 그의 가족 일부가 치명하면서 순교자의 피가 마를 날이 없었다. 이누갈다(順伊, 유희)는 태종의 14대손인 이윤하와 초대 교회 창설자인 권일신의 여동생을 부모로 두터운 신앙교육 속에 자랐다. 1797년 가을 주문모 신부의 주선으로 유평과 동정생활을 합의하고 결혼하였다. 그가 옥중에서 친정에 보낸 편지는 한국교회사의 보물이다

1839년(기해) 박해에 잇을수 없는 순교자는 신태보(베드로)이다. 그는 1801년 주문모 신부가 순교한 후 정하상 등과 함께 북경으로 신부 영입 운동을 5, 6차례 걸쳐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경상도 상주 잣골에 은둔하던 중 1827년 4월 22일 전주 포교에게 체포되었다. 그후 13년의 옥고를 치루고 다른 5명과 함께 1839년 4월 참수치명하였다.

1866년(병인) 박해에는 기록을 찾을 수 있는 수(數)만도 22명이 전주에서 치명했는데 그중 숲정지에서 치명한 7명 전원이 1968년 10월 6일 복자위에 시복되었으니 미소한 땅 숲정지가 주님의 복지로 된 날이다.

* 중바위(一名 치명자산)

이곳은 치명터는 아니지만 교회 속에 순교자의 영광이 새롭게 나오고 순교자의 피에서 많은 열매가 맺어 지길 바라는 신앙인들에게는 뜻깊은 곳이다. 이곳에는 동정부부 이누갈다와 유평, 그리고 신희·이유희·유문석·유충성의 유해가 안장되어 있다.

1801년 박해가 녹어지자 유헌경의 노복과 교우들이 전멸된 유헌경의 가족 여덟구의 시체를 각 형장에서 모아다가 각각 백사발속에 먹으로 성명을 표시하여 초남리 자기 땅 한곳에 묻어 주었다.

그후 1920년 전후해서 전동성당 구신부가 유헌경 형제를 제외한 여섯분의 유해를 이곳으로 옮겼다. 구신부가 유헌경과 관점을 옮기지 않은 것은 그 당시 교회를 곤경에 빠지게 한 유관경은 물론 유헌경의 신앙까지도 회의적으로 본 달레(Dallet)의 기록 때문이다. 그러나 역사적 공헌만은 높이 평가할 줄 아는 교회의 아량을 기다리고 있다.

누갈다 묘소는 수많은 기원상과 일화를 남기면서 시복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

* 옥(現 대학병원, 경찰서)

순교자들이 계속해서 쓰러진 곳은 역시 어느 곳 보다 옥중이다. 신유 박해때는 200여명, 정해 박해때는 270여
<3면에 계속>

< 2 면에서 계속 >

명, 기해와 병인박해때는 두옥(左獄과 右獄)이 초단원을 이루었다.

특기할 순교자는 이누갈다의 남편 유중철(重喆)과 아우 유문석(文碩)이다. 그들은 1801년 10월 9일 옥중 교살되었다.

또 이누갈다의 동생 이경연(바오로)은 북경 주교로 부터 중요한 교회 임무를 부여받고 적극 활동하다가 정해년 6월 29일, 36세로 옥사하였다. 그리고 기해박해에는 한국의 아네스라 불리는 12세의 소녀 이아나다시아(봉금)와 그의 부친 이성삼(바오로)과 모친 김아가다가 옥중 순교하였다.

*** 초록바위(現 다가공원)**

초록바위의 처형은 박해의 잔인성을 잘 보여준다. 이곳에서는 병인년 순교복자 남중삼과 그리고 홍봉주의 아들이 치명하였다. 이 양가는 온 가족을 사형시키거나 노비로 삼고 가산을 몰수하는 노륙지전(拏戮之典)이라는 혹형을 받았다.

그러나 14세되는 남중삼의 큰아들인 명희(명학)와 홍봉주의 아들이 나이가 어려서 그 당시 관례대로 전주옥에 더 수감했다가 나이가 들자, 언젠가 초록바위 위에서 전주천에 밀어 넣어 죽였다.

*** 고산 천호공소 순교자들 무덤**

고산지방은 초대 교회때부터 신자가 많이 살던 지방이다. 고산 운동면(雲東面)에 1801년 치명한 윤지현을 비롯, 교회 문헌 안에는 이 지방 출신 치명자가 23명이나 보인다. 다리실, 또는 용추내라고도 불리는 천호공소(완주군 비봉면 내월리)는 병인 박해 전부터 지금까지 교우촌이다.

1868년 10월 초 여산에서 순교한 장윤경(야고버)은 바로 이곳 회장이었다. 지금 천호공소 뒷산에는 지금 복자 손선지의 가(假) 무덤과 7인 무덤으로 순교자들의 봉분 외에 연고를 알 수 없는 다섯 봉의 순교자 묘가 외롭게 후손들의 관심을 기다리고 있다.

7인 무덤: 1868년 박해 때 체포되어 여산에 끌려갔다가 풀려 나온 김영문(요셉, 박해 당시 22세 가량)의 증언에 따르면 이 7인 무덤은 1868년 여산에서 치명한 분들의 무덤이라 한다.

*** 복자 손선지와 그 동료들의 무덤**: 병인년 전주 숯정사에서 치명한 일곱분의 복자들은 가족과 교우들의 주선으로 전주 서문밖 서천교 넘어 용마루재에서 완주군 소양면 유상리 뒷산에 산주 오윤택의 주선으로 옮겨졌었다. 그후 손선지는, 자초지종은 분명치 않으나, 큰아들 정희(요한)에 의해 이곳으로 묻혀졌다. 그런데 교회 문헌에는 복자 정발도르메오·정베드로·한요셉이 이곳에 묻혔다고 하나 확인되지 못하고 있다.

숯정사에서 치명한 7명의 복자중 유해가 관리되고 있는 분은 손선지와 이명서이다. 이명서는 유상리에서 그의 손자 이준명(아나톨)이 1920년 3월 22일 진안 어은동 모시골로 이장했다. 그후 1968년 시부되면서 손선지와 함께 그의 유해는 전주 복자성당과 절두산 순교자 기념관에 나뉘어 모셔져 있다.

*** 여산 성당 일대**

여산은 전주지방의 제 2의 성지라 할 수 있다. 병인 박해가 일어나자 금산·진산·고산 등지에서 체포되어 온 신자로 옥을 메웠다. 1868년 여산에서 치명한 수는 기록만도 22명인데 그중 13명이 고산 출신이다. 여산지방은 박해때 형성된 교우촌이 곳곳에 있어서 신자들의 옛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사형은 옥에서는 백지사(白紙死)로, 숯정사와 옛장터 옆에서는 교수형으로 집행 되었다. 옛장터에서 1868년에 있었던 사형집행의 목격담에 의하면 형을 집행하기전 풀밭에 신자들을 끌어 놓으니 배가 고파 점승처럼 풀을 뜯어 먹었다고 한다.

*** 나 바 위**

이곳은 한국인 최초의 사제인 김래진 신부가 신학교 유학차 출국한지 9년만에 사제로 금의환향하며 첫발을 디딘 땅이다. 그 당시 한국교회는 6년간 사제가 없던 때였는데 김신부는 페테올 고주교(3대 주교) 다블뤼 안신부(5대 주교) 등과 함께 1845년 10월 12일 야음에 나바위성당의 화산밑으로 상륙하여 상복으로 갈아 입고 전교권을 나눴다.

*** 수철리 순교자 김아오스딩의 묘**

고산본당 수철리공소(운주면)를 다 못가서 오백미터 전방 길위에는 병인년 박해 공주에서 치명한 김아오스딩(영오)의 묘가 있다. 그는 고산 베제에서 살때 기해박해(1839년) 때 체포되어 9개월의 옥고를 치루고 석방된 후에는 진산 가세밭에 살다가 연산 상사바위로 이사후에 체포되어 8월 28일 치명하였는데 김재덕주교의 증조부이기도 하다.

요십이 (423) 김병오



□작품전

김 정 자

바가지공예 작품전

일시: 1981. 9. 19~9. 21

장소: 김정자 바가지공예 연구원

전주시 경원동 3가 50의4

(이경법 방사선과 의원 2층)

주택은행 옆

□신장개입

금·은·보석 고급 시계

보 석 장

군산시 중앙로 1가 경찰서부근 (조흥은행 앞)

전화 2 5 1 3

한 철 재(비오)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공지사항

1. 수녀연합회 주관 성서 세미나 *일시-81년 9월 21일(월) 오후 2시~4시
장소-가톨릭센터, 강사-영원한 도움의 성모회 수녀, 대상-수녀 및 본당 부녀대표 1~2명
2. 4지구 회합: 9월 17일(목) 오후 2시 노송성당
3. 제 2지구 복자 현양대회 행사: 9월 27일(일) 고산 천호공소

(중앙)

전화 ③3651번
3874번

주임 신부 문정환
보좌 신부 유중환
보좌 신부 박인홍
사도 회장 김병구

1. 꾸리아 월례회: 오후 2시 강당
 2. 성령 세미나: 9월 21일~26일까지 희망자는 20일까지 사무실에 신청 바랍니다 회비 3천원
 3. 순교자 현양대회: 9월 27일 오전 11시 치명자산
 4. 교리반 안내: ① 81년도 성탄 영세 대상자는 8월 말로 예비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② 82년도 부활 영세자는 9월 말까지 모집하며 10월 부터 예비자 교리를 실시합니다
구분 ①성인반 ②노인반 ③학생반
※ 등록기간 외에는 등록을 받지 않습니다
 5. 9월 21일은 유증환 신부님의 영명축일입니다
교우 여러분의 많은 기도를 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573,670원
200주년 기념 헌금: 283,590원

(서학동)

전화 ②2276번

주임 신부 김병환
사도 회장 한형수

1. 꾸리아 모임: 13일 오후 2시
 2. 반장님월례회: 공식 미사후
 3. 성심 부녀회: 18일(금) 오후 2시 성당에서
 4. 성서 교리: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구약성서 지참)
 5. 주일학교 어린이 성가 경연 대회: 9월 20일 4·5·6학년
매일 오후 6시 연습 있음
 6. 할머니회: 다음주 공식 미사후
 7. 각 단체 및 신심 단체별 사진 촬영: 본당 앨범에 길이 남기기 위해 사진 촬영 바람
 8. 다음주 전례담당: 독서-① 조동근 ② 이정민
- 지난주 봉헌금: 188,505원 교무금: 97,500원

(숲정미)

전화 ③7366번

주임 신부 이대권
주·유 ③9567번 사도 회장 이강노

1. 성모회 월례회: 20일 공식미사후
 2. 청년회원 1일 피정을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3. 삼일기도 안내: 주일학교 후원회원 일동 14~16일까지 3일간 매일 오후 2시30분 치명자산 뜻 있으신 분은 오후 2시 서진교 앞에 모여 주세요
 4. 대학생회: 매 주일 오후 2시 많은 참석 바랍니다
 5. 중·고등학생 성가연습: 14일부터 오후 6시까지 참석
 6. 차주 전례담당: 해설-이기호, 독서-① 홍성조 ② 김창영, 기도-황철노
- 지난주 봉헌금: 288,620원

(노송동)

전화 ②7032번

주임 신부 김정원
사도 회장 박춘근

1. 제21차 성령 세미나: 14일부터~19일까지 매일 저녁 8시~10시까지,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 수녀님들을 위한 베소라 성서 특강: 매주 <월> 오후 2시부터
 3. 성령 기도회: 매주 <금> 오후 2시~4시까지, 직장인들은 매주 <금> 저녁 8시부터
 4. 금주의 성경 읽기: 구약의-유희기 전체
 5. 예비자 교리: 20일부터 매주 <일> 공식미사후 매주 <수> 저녁 8시, 예비자를 안내합니다
 6. 꾸리아 임원 개편: 단장-박태복, 부단장-이일규, 서기-박기성, 회계-김철문 수고하시겠습니다
 7. 성모회: 공식미사후, 산우회: 저녁미사후
- 지난주 봉헌금: 336,830원

(전동)

전화 ③3222번

주임 신부 김병엽
보좌 신부 박병중
사도 회장 이종두

1. 예비자: ① 특별교리-15일~25일(오후 8시~9시) ② 2단계 입교식-20일 10시 ③ 영세식-26일 오후 7시 30분
2. 구역회합 일정
16일 오후 8시-전동 1·2·3구, 동교동 1·2·3구 서교 1구
17일 오후 8시-동완산 1·2·3구, 서완산, 경원, 중앙동 다가동
18일 오후 8시-풍남 1·2·3·4구, 남노 1·2구
3. 치명자산 9월기도: 16일~25일(일요일 제외), 우천시 본당에서 치명자산에서 5시 30분 미사, 본당 아침미사 없음
4. 젊은이 단체장 모임: 20일 오후 8시 30분 보좌신부님 응접실
5. 젊은이 미사: 매주 수요일 저녁미사(7시 30분)
6. 자모회: 공식 미사후
7. 장우회: 금월중엔 장우회 없음
8. 성화회: 다음주 공식 미사후
9. 피미시움: 다음주 오후 2시
10. 다음주(20일) 전례담당
아침미사: 해설-박중주, 독서-① 최병래 ② 김창선
공식미사: 해설-양현홍, 독서-① 백중홍 ② 이영태
저녁미사: 해설-경양수, 독서-① 이승호 ② 정동희

(덕진)

전화 ③2182번

주임 신부 서역도
보좌 신부 서영열
사도 회장 양상열

1. 성경연구 계속: 수요일-오후 3시 금요일-저녁 8시
많은 분들 참여 바람 젊은이는 금요일 참석 바람
 2. 예비자 교리: 일요일-11시, 수요일-저녁 8시
 3. 영세식: 26일 오후 4시
대부 매모님 선정하시고 3시까지 나오세요
 4. 치명산 미사: 14일·21일·30일 저녁 6시미사
 5. 주일학교 어린이 교리반으로 보내주세요
일요일 오후 2시 교리, 3시미사
 6. 오늘은 애령주일입니다
먼저가신 선영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376,930원

(복자)

전화 ②5238번

주임 신부 김중택
보좌 신부 김희남
사도 회장 주성호

1. 성우회 월례회: 다음주일(9월 20일) 공식미사후 (김국원·염규철 형제)
 2. 성지순례: 9월 16일(수), 장소-고산외재, 교통비-2천원 도시락 지참 주일학교 자모회·복자 부녀회·기타(오늘까지선착순)
 3. 주일학교 개학: 지난 6일부터 개학을했습니다
부모님들은 어린이들을 매주일 오후 2시까지 보내요
 4. 견진자 신청: 9월 27일까지 신청 바람 (27일까지 미신청자는 견진을 받을 수 없음)
 5. 본당의 모든 청년(대학생 포함): 매주 수요일 저녁에 있는 청년모임에 참석하여 주십시오
 6. 복자 부녀회에서 벌리고 있는 판매사업에 협조바람
 7. 다음주전례: 해설-윤혜경, 독서-①유명자 ②김순희
- 지난주 봉헌금: 353,480원
200주년 특별헌금: 40,750원

(파티마)

전화 ②0915

주임신부 김영일
사도회장 채수협

1. 꾸리아 회합: 사정상 다음주(20일)로 연기
 2. 은퇴 신부님을 위한 기도와 봉헌금 전달: 봉헌금-24만원 ※ 감사합니다
 3. 다음주 10시 미사 없음: 치명자 묘역에서 합니다
※ 어린이와 중·고생 참석 바람
※ 3시 미사와 저녁미사 있음
 4. 유아세례: 다음주 3시 미사후(사무실에 연락)
 5. 교무금 봉헌에 최대의 정성을!
- 지난주 봉헌금: 250,165원 교무금: 108,000원